매일경제

저항의 미술, 카셀을 물들이다

July 08, 2017 I 김슬기 기자

글로벌 아트 NOW

㊦ 카셀 도큐멘타 참관기

올해는 독일에서 5년마다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9월 17일까지)와 10년마다 열리는 뮌스터 조각전(10월 1일까지)이 동시에 열리는 '그랜드 아트투어'의 해입니다. 6월 10일에 나란히 시작한 이 세계 최고의 미술축제를 매일경제가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주전시관 앞에 설치된 역사 속 금서 3만권을 쌓아올려 만든 마르타 미누힌의 '책의 신전'.

저항의 미술, 카셀을 물들이다

100일간의 세계 최고 미술축제
'그리스에서 배우기' 주제로
처음으로 아테네와 동시에 열려

금서로 '책의 신전' 쌓으며
정치적 비판 목소리 높여

인구 20만명에 불과한 독일 중부의 소도시 카셀은 5년마다 '세계 미술의 수도'가 된다. 순수예술을 발살하려 한 나치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1955년 아르놀드 보데가 창설한 카셀 도큐멘타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2년마다 각 국가의 '오늘'의 대표 작가를 소개하는 미술올림픽 성격을 띤다면, 카셀 도큐멘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위예술 실험실 성격을 띤다. 미술계를 이끌 담론을 생산하고 '내일'의 미술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매번 큰 반향을 일으켜왔다.

올해도 작가 160여 명의 장르도 경계도 없는 650여 점의 미술작품이 초청돼 주전시관뿐 아니라 온 도시에 점점이 설치되며 카셀을 우아하게 변모시키고 있었다.

카셀 중앙역에 도착하자마자 아트투어는 곧장 시작됐다. 도시 어딘가에서 도큐멘타의 심벌인 원 속에 'documenta 14'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판이 눈에 보인다면 바로 그곳이 전시장이다. 중앙역 광장에서 과거의 폐역사가 숨겨진 지하로 향하는 컨테이터를 놓치면 안 된다. 흑인 학생들이 교사에게 다툼을 벌이는 영상 '월요일', 철로유럽 제국의 역사와 명작들을 병치시키며 제국주의를 고발하는 영상 '제국의 과정' 등이 숨겨진 역사를 빠져나오면, 그리스 국기와 함께 그리스어로 환영한다는 뜻의 'XAIPETE!'가 적힌 간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 작가 자고라리스 작품 '환영문'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리스 병사의 노래와 함께 참전 깃발을 재현한 작품이었다.

올해 도큐멘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아테네(4월부터 7월 16일까지)와 공동으로 전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총감독 아담 심치크가 선택한 주제는 '아테네에서 배우기'이다. 서구 정치와 예술의 근원인 그리스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이번 도큐멘타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저항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주전시장 프리데리치아눔 미술관 앞에 역사 속 금서 3만권을 쌓아올려 만든 마르타 미누힌의 '책의 신전'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 그대로 아르헨티나의 독재 시절 금서로 분류됐던 책을 쌓은 이 스펙터클한 광경은 관람객들의 셀카존으로 각광받았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거대한 파이프 속에 난민들의 숙소를 재현한 하이와 K의 '우리가 숨을 내쉴 때'도 가장 주목받은 전시였다. 파이프 속에는 난민들이 실제로 이불과 가재도구, 라디오의 음악 소리까지 재현됐다.

국내 작가 김수자의 '보따리' 전시 모습.

주전시관인 프리데리치아눔에는 모나 하툼, 야니스 쿠넬리스 등 그리스 작가를 위시한 그리스현대미술관(EMST)의 소장품 200여 점이 공수돼 전시됐고, 도큐멘타에 공식 초청된 작가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주전시관에서 오스트리아의 올리버 레슬러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란 작품에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과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걸어 오늘의 정치를 비판했다. 에밀리 자키르는 폭격으로 사라진 팔레스타인의 418개 마을을 기억하자며 이들의 이름을 적은 텐트를 지었다. 미국의 안드레아스 보웍스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철조망 그림 '노 올비다도'를 걸기도 했다. 이곳 1, 2층에는 유일한 국내 초청작가인 김수자가 유랑자로서의 삶을 은유한 작품 '보따리'가 도 설치돼 있었다. 하나같이 정치적 탄압, 변방, 여성, 난민, 빈자들을 대변하는 저항의 미술이었다.

주전시관과 나란히 자리한 도큐멘타 할레는 수십 m에 달하는 거대한 층고로 대형 설치작품이 집중된 곳. 이곳에는 폭격을 피해 바다를 건너는 이들을 태웠던 난민 보트를 전시장에 그대로 걸렸다. 브리타 마가렛-라바의 '히스토리아'는 스웨덴의 낭만적이면서도 때론 혹독했던 역사를 수십 m의 퀼트로 짠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노이에 갤러리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은 폴란드 작가 피오트르 우클란스키의 사진 콜라주 '리얼 나치스'였다. 독일 나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초상 수백여 장을 히틀러의 초상과 함께 전시장의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으로, 폭력의 역사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심치크는 이곳에 야심적으로 히틀러의 약탈 미술품 1200여 점을 전시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무산됐다. 열 곳이 넘는 전시장을 다 찾기에는 체력이 달리는 이들을 위해 한 곳만 더 추천한다면 우체국을 전시장으로 바꾼 노이에노이에 갤러리를 꼽겠다. 호주 원주민의 시각에서 서양의 침략 역사를 가로 길이가 수십 m에 달하는 대형 회화로 표현한 작품도 있었고,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패러디한 거대한 걸개그림, 태국 '아룬 룽장'의 독일 홀로코스트와 태국의 독재를 비판하는 퍼포먼스 영상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등이 인상적이다. 이번 도큐멘타는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작가보다는 유럽 작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품을 집요하게 모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상쇄할 만한 지점이 있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폭력을 비판하는 예술가들의 난장, 그것이 '도큐멘타 14'의 강령한 첫인상이었다.

카셀(독일)/김슬기 기자

URL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57136